

작품 내용

제 목	70년 뒤의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
내 용	지금 내가 띄우는 이 문장들은 나의 숨결이 멎은 후에도 70번의 겨울을 지나 비로소 당신의 식탁 위로 도착할 것이다. 창작자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글만 남을 시간, 그 먼 미래의 당신에게 내 온기를 전하기 위해 나는 오늘 ‘저작권’ 이라는 정교한 봉투를 붙인다. 누군가 함부로 내 언어를 뜯어보지 못하게 법이라는 단단한 끈으로 묶어두는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, 훗날 당신이 만날 문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. 나의 고뇌가 오롯이 당신의 영감이 되도록 나는 내 권리를 잠시 방패로 세우지만, 그 방패는 결국 당신에게 더 온전한 유산을 건네기 위한 가장 정중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해 주길. 70년의 침묵을 견디고 당신 앞에 설 내 글이 부끄럽지 않도록, 나는 오늘도 내 울타리를 돌본다. 언젠가 모두의 것이 될 이 언어들이 가장 빛나는 상태로 당신의 시대에 도착할 수 있도록. 그날까지 나의 문장은 나의 이름을 달고 당신을 향한 긴 여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.